

일인칭 복수 (FIRST PERSON PLURAL)

역사 개요

1903 년

1894-1895 년의 중일전쟁에서 중국이 일본에 패하자 일본이 중국을 대신하여 한국의 보호국이 된다는 일본과의 “보호조약”이 체결되게 된다.

1904 년

일본의 러시아 함대 침공으로 노일전쟁 발발하다.

1905 년

일본의 노일전쟁 승리에 긴장한 테오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가스라-태프트 협약을 맺어,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이익을 묵인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하다. 일본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묵인하다.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의 되다.

1907 년

고종 황제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탄원하다. 일본은 보복조치로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킨다.

1909 년

한국에 주재하던 일본 식민총독 이토 히로부미 대장이 한국의 애국지사 안중근에게 암살되다.

1910-1945 년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다. 일본의 식민정책은 정치적 억압, 경제적 탈취, 문화적 동화가 주를 이룬다 (한국인들은 “창씨개명”을 통하여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했고, 학교에서 한국의 역사와 언어와 문화전통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된다).

영화제작자 디안 볼쉐이 림(Deann Borshay Liem)의 한국 생부 생모가 이 시기에 태어난다.

1918 년

중국에 한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다. 이승만이 초대 수반이 되지만 1925 년 탄핵되었다. 민족주의자 김구가 이승만의 후임이 되었다.

1919년

우드루우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3월 1일 각계각층의 한국인들이 일본의 지배에 대항하여 전국적 시위를 벌인다. 시위는 무력으로 탄압되어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투옥된다. 이후로 민족주의 운동은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갈라선다.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미국과 일본으로 건너가 한국독립을 위해 로비활동을 펼친다. 1925년에는 한국공산당이 결성되다. 몇 년 후 해체되기는 했지만 아시아 모든 나라를 통틀어 최초로 결성된 공산당이였다. 1930년대에는 한국의 독립군 게릴라들이 만주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다. 김일성이 탁월한 게릴라 지도자로 부상하다.

194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장개석, 윈스턴 처칠이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다. 선언에는 한국에 관해 이렇게 명기되어 있다. “상기 3개 강대국은 한국 민족의 노예화를 우려하여, 머지 않은 시기에 한국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자유독립을 얻어야 할 것에 합의하다.”

1945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다. 미국은 소련군이 한국 전체를 점령하게 될 것을 우려해, 한국의 38선 이북에 대한 일본의 항복은 소련이 접수하고 38선 이남에 대한 일본의 항복은 미국이 접수할 것을 제의하다. 초창기 자치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배경의 한국인들로 구성된 인민위원회들이 출범되다.

1945-48년

미국은 한반도 남부에 정식 군정을 가동해 미국의 강력한 존재를 확보하다. 미국은 인민위원회들을 인정하지 않으며, 처음에는 일본 식민당국의 손에 통제를 맡긴다. 결국 미국은 우익 이승만을 지지하며, 이승만은 가장 보수적인 진영에서 좌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선의 한국 민족주의자들을 유혈 진압하다. 한반도 남부는 공산주의를 억누르고 궁극적으로 일본 경제를 복구시키는 전략적 위치가 되다.

북쪽의 소련은 인민위원회들을 인정하다. 공산당과 신민주당이 합병하여 한국노동당이 결성되다. 김일성이 노동당 지도자로 떠오른다. 이 당이 최초로 벌인 사업은 노동자와 농부들 및 기타 정당들의 연합전선을 주도하여 철저한 토지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이전에는 일본인 또는 한국인 지주들의 소유였던 토지가 땅 없는 농부들에게 분배되다. 한반도 북부는 정치, 경제 체제에 한국식 사회주의 접근을 채택하다.

한국의 통일을 목표로 한 미국과 소련간의 대화는 결국 무산되다. 미국은 유엔이 개입하여 전국규모의 한국 선거를 감독할 것을 제의하다. 소련과 한반도 북부는, 유엔이 한국에 대해 사법권이 없으며 유엔의 선거실시 제의는 미국이 지원하는 남쪽 편향의 일방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의를 거부하다. 1948년 5월, 유엔은 남쪽에서만

선거를 실시하다. 8 월에 대한민국(남한)이 수립되고, 9 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수립되다.

1948-1950 년

이승만은 한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기 위한 “북진” (북침) 정책에 워싱턴의 지지를 구하면서 남쪽의 좌익 반동세력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하다. 경제는 도탄에 빠진다. 북쪽에서는 조선인민군이 계속 성장하고, 경제구조도 꾸준한 발전을 보인다. 38 선을 둘러싼 한국군과 북한군 사이의 무력충돌이 잦아진다.

“1950 년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새로운 절정에 이른다... 한국의 정부, 군대, 경제, 철도, 공항, 광산, 공장은 모두 미국인들에 의해 가동되었다. 자금과 전기와 전문기술과 심리적 원조가 모두 미국에서 조달됐다. 한국의 모든 차량은 미국의 석유로 움직였다. 미국문화의 영향력은 견잡을 수 없었다... 모든 국민까지는 몰라도 수많은 한국인에게 미국은 꿈의 나라였다.” Bruce Cumings (브루스 커밍스) 저 KOREA'S PLACE IN THE SUN (p. 253)에서.

1950 년

1950 년 6 월 25 일, 북한군이 38 선을 넘어와 서울을 점령하다. 한국은 북한의 침략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시의 기습이었으며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다. 북한은 미국이 지원하는 이승만의 독재체제로부터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반격이었다고 주장하다. 며칠 후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이 이승만을 지원하며 전쟁에 개입하다. 10 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북한을 원조하며 개입하다. 내전으로 시작된 전쟁이 국제전이 되었다. 한반도는 폐허가 되며, 대부분 민간인인 사망자 수가 수백만에 달하다.

수많은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일부 미군들이 고아원들을 열어 지원하고, 기부금을 모금하며, 고아들에게 옷과 장난감과 음식을 조달해 준다.

1953 년 7 월 27 일

한국전쟁이 종식되다. 남북한은 모두 잿더미가 되다. 이전의 분단상태가 그대로 지속되다. 지금의 평화유지는 공식 평화협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휴전협정의 산물이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휴전협정에 서명하다. 이승만은 휴전협정을 보이콧하다.

1954 년

한국전쟁의 결과로 수천 명의 고아들 및 한국인 어머니와 유엔군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생겨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보건사회부 산하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혼혈 아동들의 미국 및 유럽 입양을 공식화하다. 곧 해외입양은 제도화되어, 고아들 및 버려진 아동들을 해결하는 한국의 주요 정책이 되다.

1955년 9월

한국아동의 첫 해외입양이 이루어진다. “조니(Johnny)”라는 이름의 남자아이가 국제사회서비스(International Social Services)의 도움으로 미국에 보내진다.

1955년

해리와 버타 홀트(Harry & Bertha Holt)가 한국에서 8명의 미국계 아동들을 입양하다. 그들은 더 많은 한국 아동들의 미국 가정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홀트국제아동서비스(Holt International Children's Services)를 설립하다.

1957년

디안이 한국에서 강옥진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다.

1960년

이승만은 현재 4.19 학생의거로 알려진 전국적 학생 봉기에 밀려 권좌에서 물러난다. 윤보선을 대통령, 장면을 수상으로 한 한국의 첫 민주정권이 선출되다.

디안의 생부가 병명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다.

1961년

장면 정부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에 무너진다. 박정희는 일련의 중앙통제 정책으로 한국의 산업화에 착수하며, 1979년 한국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될 때까지 강권 독재 통치를 한다.

1965년

산업화 전략의 일환으로 박정희는 한국의 이전 식민 통치국인 일본으로부터 일체의 사과 요구조차 보류한 채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다.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한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하며 거리에 나가 시위를 벌이지만 무산되다. 1960년대 말에는 일본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떠오른다.

한국 아동들은 계속 해외입양을 통해 서방의 가정으로 보내진다. 가난에 찌든 가정 출신의 아이들이 많다. 앞이 캄캄했던 부모들이 행여 서방국가의 가정에 입양되기를 바라며 자녀들을 버리거나 포기했던 것이다.

디안의 생모가 디안과 디안의 두 남매를 순덕 고아원으로 보낸다.

1965-73년

린든 존슨 미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을 확대하면서 박정희 한국 대통령에게 베트남 파병을 촉구한다. 결국 약

300,000 명의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다.

1966 년

차정희(사실은 강옥진)가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의 볼쉐이 가정에 입양되다.

1970 년

1970 년까지 9,500 명이 넘는 한국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1972 년

디안의 한국인 큰오빠 강영진이 베트남에 파병되어 전사하다.

1973-1976 년

해외입양 아동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

1973 년 - 4,688 명

1974 년 - 5,302 명

1975 년 - 5,077 명

1976 년 - 6,597 명

1979 년

박정희가 암살되고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다.

1980 년 5 월

전두환은 한국에 계엄령을 선포하다. 광주에서 계엄철폐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규모 시민반란이 발생하다.

전두환은 공수 부대를 보내 반란을 진압하며, 그 과정에서 수백 내지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되다.

4,144 명의 아동들이 해외 입양되다.

1981 년 5 월

전두환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다. 그의 임기는 주로 대학생들 그리고 일부 근로자들의 격렬한 저항과 그에 대한 정부의 심한 탄압으로 점철되다.

1981 년

디안이 드디어 한국의 친가족을 찾아낸다.

1982 년

6,434 명의 아동들이 해외 입양되다.

1983 년

디안이 처음으로 친가족과 재회하다.

1984 년

7,924 명의 아동이 해외 입양되다.

1985 년

한국이 한해동안 해외 입양을 보낸 고아의 수가 최고에 달해 총 8,837 명의 아이들이 북미와 유럽으로 보내진다.
대다수는 미국 가정에 입양되다.

1986 년

8,670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다.

1987 년

전두환이 지정한 그의 친구 노태우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다 (양분된 야당 후보 김영삼과 김대중을 상대로).

1988 년 서울 올림픽

전세계 주요 신문들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아기 수출”이 보도되다. 북한도 부유한 서방국가에 아기를 파는 것은 자본주의의 궁극적 발현이라며 남한을 비난한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국내 고아입양을 더욱 장려하여 1996 년까지 해외입양을 종식시키기로 결정하다.

1989 년

해외입양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다. 총 4,191 명의 한국 아동이 해외로 보내진다.

1991 년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줄어들어, 1989 년에 3,544 명이 미국에 보내진 데 비해 1991 년에는 1,118 명으로 떨어진다.

1992 년

디안이 두 번째로 친가족과 재회하다. 디안이 영화 ‘일인칭 복수’의 촬영에 착수하다.

1993 년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79 년 군사 쿠데타와 1980 년 광주 학살로 인해 기소되다.

1994 년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다. 워싱턴은 북한 원자료를 무력 파괴하는 방안을 고려하다. 김일성과 지미 카터의 만남으로 위기가 모면되다. 결국 미국과 북한의 외교관들 사이에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전에는 판문점에 있는 미국과 북한의 군사 대표들 사이에만 약간의 접촉이 가능했었다.

김일성과 김영삼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역사적 정상회담을 준비하다.

김일성이 세상을 떠나자 정상회담 준비는 무산되며 북한은 3 년간 애도기간에 들어간다. 그 동안 김정일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북한의 지도자가 되다. 김영삼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막으려 하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에너지 자원의 고갈을 겪게 되며, 그 결과 석유화학비료에 크게 의존하는 북한의 농업에 위기가 닥친다. 대규모 기아에 봉착한 북한은 국제무대에 식량원조를 호소하다.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경제 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995 년

국내 입양을 장려하려는 한국정부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다. 정부는 1996 년까지 해외입양을 종식시킨다는 방안을 폐기하고, 혼혈아들과 장애아들의 해외입양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다.

1996 년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다. 전임자 김영삼과 달리 신임 대통령은 워싱턴과 북한과의 대화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남북간 접촉을 높여나가는 정책을 채택하다.

총 1,516 명의 아동들이 미국으로 입양되다.

1997-1999 년

1997 년의 경제난으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체제에 들어간다.

한국은 해외입양을 해마다 3-5%씩 줄여나가 2015년까지 해외입양을 종식시킨다는 내용의 쿼터제를 발표하다. 그러나 경제 위기 이후로 한국에는 부모의 부양 능력 결여로 인해 버림받는 아동들의 수가 다소 늘어난다. 지난 몇 년 사이 미국 가정에 입양된 아동들의 다음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입양도 증가세로 돌아선다.

1997년 - 1,654명

1998년 - 1,829명

1999년 - 2,008명

1998년

디안과 그녀의 부모 아놀드와 엘빈 볼셰이(Arnold & Alveen Borshay)가 한국에 가서 디안의 친가족들을 만난다.

2000년

김대중과 김정일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이 뒤따른다. 북한은 윌리엄 클린턴(William Clinton) 대통령의 방북 준비단계로 미국 국무부 장관 매들린 올브라이트(Madeline Albright)를 평양에 초청하다.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시간 현재 한국에는 아직 약 37,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2000년 가을로 예상되던 클린턴 대통령의 북한 평양 방문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남북한 양국이 너무 멀지 않은 장래에 통일되기를 바라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희망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한편, 북미와 유럽의 한국인 피입양자들 수천 명이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 한국에서 살며 일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간혹 친가족들을 수소문해 다시 만나려는 경우도 있다.

입양 통계자료 출처:

울소-노운-에즈(also-known-as, inc.) - <http://www.akaworld.org/koreanstat.html>

전국입양정보센터(National Adoption Information Clearinghouse) - <http://www.cabib.com/naic/>